

## 2019 만화평론 공모전 선정평가 종합의견

생각보다 많지 않은 응모작이었다.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비평, 큐레이션 능력이 중요하다. 특히 만화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. 만화는 서사 매체이지만, 서사적 특징만으로 평론이 완성되는 건 고민해야 되는 일이다. 작화, 연출, 캐릭터 등 만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평론에 반영되어야 한다. 또한 만화가 지닌 사적 맥락, 계보적 특징, 당대성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.

지정평론과 함께 평론가의 큐레이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평론이 자유평론이다. 자유평론은 평론문 뿐만 아니라 작품을 고르는 안목도 중요하다. 심사위원들은 자유 평론을 평가하며 어느 작품을 ‘선정’ 했는가도 진지하게 판단했다. 심사는 사전평가 이후 지정평론과 자유평론 모두 발상 및 구성력, 문장력, 참신성, 대중적 공감도를 나눠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.